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오프’ 확산... 변동성 확대 불가피

(Risk off·위험 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변동성 확대 국면
과거 반등 사례에도 신중론 우세
유가급등·호르무즈 해협변수 촉각
물가 재자극 땀 금리인하 지연 우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무력 충돌이 확산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확산하는 전쟁 위협과 이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우려에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예기치 못한 전쟁 상황이 마무리될 경우가 파른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순 있지만 이번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고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당분간 변동성 확대 불가피”

중동발 전쟁 공포가 세계 경제를 장기간 뒤흔들 촉매로 작용할까. 아니면 중동 지역 분쟁 중 하나로 ‘찾잔속태풍’에 그칠까. 시장 참여자들은 과거 ‘빅 이벤트’ 때의 학습효과에 주목한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1948년 1차 중동 전쟁 발발 당일 S&P500지수는 3.8% 내렸으나 일주일과 한 달 후에는 각각 7.2%와 10.3% 올랐다. 1967년 3차 전쟁 당시에도 첫날엔 1.5% 하락했으나 일주일 후에는 4.1% 상승했다. 1~4차 전쟁 당시 평균 등락률을 보면 첫날엔 1% 내렸으나 일주일과 한 달 후에는 각각 3.1%와 2.5% 반등했다.

지수 하락이 이례적으로 컸던 2차 전쟁(수에즈 사태), 1990년대 걸프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수준으로 격화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분석이다.

과거 호주 투자 분석 업체 카퍼리포트의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과 비슷한 지역 분쟁이었던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때는 주가가



2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의 한 경찰서 건물이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손돼 있다. /AP-뉴시스

13% 빠졌다가 3개월 뒤 2%, 6개월 뒤 16% 반등했다. 1950년 6·25 한국전쟁 때에도 12% 떨어진 주가가 3개월 뒤 15% 상승으로 바로 튀어올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학습 효과에 더해 각국 정부의 대응 능력과 산유국 증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증시의 추세 전환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 2일 유럽과 일본 등 여타 주요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미국 증시가 나뉘는 축소할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해 지나친 낙관론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역사는 시장이 어떤 특정한 갈등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은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일본의 미국 진주만 공습 당시에는 다투어 평균 하락세가 6개월 넘게 장기화했다가 1년 뒤에야 반등했다.

1973년 중동 오일쇼크 때에도 저점 3~6개월 후에는 상승했지만 1년 뒤에는 오히려 저점 대비 25%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중동사태, 복합 위기로 확대 우려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위험들과 겹쳐 복합 위기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불을 지른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공급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주요 원유 생산 지역 분쟁으로 글로벌 물가(인플레이션)가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롬바드오디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새미 차르는 로이터에 “분쟁 장기화로 오일 쇼크가 발생한다면 원자재, 채권 금리, 통화, 석유에 민감한 주식 섹터, 인플레이션 전망, 통화정책 경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의 경우엔 경제성장까지 다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공급 병목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현재 유가수

준에서 상당한 상승 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2주간의 유가 급등은 미국 소비자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안 주겠지만 수개월에 걸쳐 유가가 오르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가 중동 쇼크를 받는다면 이제 막 바다를 벗어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보다 0.2%포인트 올린 2.0%로 조정했다. 하지만, 실물경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동성에 의존해 오른 증시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24년 12월 이후 최저치이고, 실업률도 두 달 연속 4%로 나타나는 등 실물 경기와 증시의 온도 차도 커지고 있다. AI 투자 사이클이 둔화할 가능성도 변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 투자 불황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전망 때보다 악화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도 불안 요인이다. 미국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원들과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당분간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이들 중 일부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인공지능(AI)발 리스크는 끊임없이 시장을 괴롭히고 있다.

◆3월 혼란 지속될 수도

‘검은 화요일’을 연출한 이날 국내 개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만 5조 8000억원 가량의 주식을 사들였다. 조정 후엔 반등이 찾아온다고 예상한 개미들이 공포에 투자하는 전략을 택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전쟁이란 예기치 못한 변수 앞에선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

고 조언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팀(이재만·김두연·전규연·박준우)은 ‘이란발 중동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를 코스피 조정, 외국인 순매도 확대, 원·달러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리스크오프 변수’로 규정했다. 김두연 연구원은 외국인 일평균 5000억원 내외의 순매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강세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이슈 발생 시 코스피는 직전 고점 대비 평균 -10% 수준의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동사태로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을 맞을 수 있다”며 “아울러 원·달러 환율은 1480원 상단을 열어두게 만드는 ‘리스크 오프’(위험 회피) 변수를 맞게 됐다”고 판단했다.

변호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국내 증시가 48%나 급등해 기술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단기 투자심리가 악화할 것”이라며 “고전 확대에 따라 코스피가 5000대 중·후반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리츠증권은 한 달 이내 5~10% 하락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고, 사태가 악화하면 1개월 이상 내림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LS증권은 -10~-15%까지도 열어뒀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주가 침체를 장기화한 사례는 1970년대 고유가 국면 정도”라며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만으로 중·장기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PBR이 2배에 근접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았던 만큼 단기 조정은 오히려 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허정윤 기자

zalkova@metroseoul.co.kr



metro

“컨틴전시플랜 즉시 가동해야”... 수출기업 유동성 위기 경고

본지, 전화·문자 긴급 인터뷰

조봉구 코리아머신 회장

이번 중동 분쟁으로 수주가 급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물 적체 현상이 심화돼 결국 수출 대금 회수에 비상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은 신속하게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해 수출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중소기업계에서 대표적인 중동 전문 사업가로 손꼽히는 코리아머신 조봉구 회장(사진)은 지난 28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국제공항에서 인도 뉴델리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탑승하려던 비행기가 연착되더니 결국 공항이 폐쇄돼 이날 인도행은 접을 수 밖에 없었다. 인도에서 예정됐던 비즈니스 미팅 약속도 일단 미뤘다.

그와 비슷한 시간.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반격하면서 인근의 아부다비공항과 바레인공항이 폭격을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 회장의 휴대전화로는 UAE 체류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계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분간 자택이나 그 외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주시고,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

머물던 두바이공항에 파편 낙하 혼란 직감해 공항 빠져나와 모던인근 호텔로 긴급 대피 뒤 이동

시내 “사람·차 끊겨 적막” 전연관광지·자유무역지대 줄줄이 폐쇄

피해기업 지원명목 ‘대출’ 상환부담 발 묶인 국민 전용기 지원 촉구

”

내용의 현지 공관발 안전 공지 문자가 도착했다.

조 회장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현지 주재관을 통해 추가로 사태 파악을 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전쟁이 터진 후 비행기가 딜레이되기 시작했을때 공항이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직감했다. 그래서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20여분 정도 떨어진 호텔로 향했다. 몇시간후 내가 있었던 두바이공항 제3터미널에 파편이 떨어져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그대로 있었다면 나도 자칫 큰 일을 당할뻔 했다.”

조 회장은 3일 메트로경제와의 전화·문자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1994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첫발을 디딘후 현재까지 30년 넘게 중동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칭 타칭 중동 전문가다. 최근에는 사업이 더욱 본궤도에 오르며 한달에 한번 이상 현지로 날아가 중동 곳곳을 누비고 있다.

조 회장은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나와 지켜본 두바이 시내의 평소 풍경과는 달리 매우 한산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도로에는 오가는 차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형 쇼핑몰과 관광지도 모두 문을 닫았고 두바이자유무역지대도 폐쇄됐다. 두바이 곳곳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지인이나 뉴스를 통해 들려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와 비슷한 시각에 두바이의 대표적인 7성급 호텔이자 랜드마크인 부르즈알아랍 호텔은 드론 파편이 떨어지며 불이 나기도 했다.

조 회장은 평소 묵던 호텔에서 1박을 하고 좀더 작은 호텔로 숙소를 옮겼다. 혹시나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이번 중동 사태로 나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는 피해기업들 지원 명목으로 상환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대출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천재지변이다. 무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UAE 아부다비 정부는 비행기를 타지 못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까지 호텔비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금 두바이에는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이 많다.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해 수요를 파악, 가능하다면 전용기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